



농촌진흥청·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제4회 농업기술전망대회' 공동 개최

- 18일, 청주 오스코(OSCO)서 열려
- '기술 대전환의 시대, 농업과학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 주제
- 미래 농업 혁신 방향과 '2026년 농업과학 10대 유망 기술'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사)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회장 강병철)는 6월 18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제4회 농업기술전망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2026 농업기술박람회'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기술 대전환의 시대, 농업과학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미래'다.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미래 농업과학 기술 발전 방향과 국가 농업 연구개발(R&D)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1부에서는 농업·농촌 대세를 파악하고 미래 쟁점을 짚어보는 기조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남재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교수(前 기상청장)가 '기후 위기 시대 농업·농촌의 현황 및 농업기술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최준기 대동애이아이랩 대표는 '인공지능(AI) 농업으로 실현하는 AI(Agri-Innovation)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농촌진흥청과 (사)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가 공동으로 미래성, 기술성, 시장성, 정책성,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 '2026 농업과학

10대 유망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기반 농업 위성 데이터 자동분석 플랫폼 △AI 기반 농장 통합관리 시스템 △농업 부산물 에너지화 기술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AI 기반 디지털 가상육종 플랫폼 △AI 기반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설계 △케어 푸드 기술 △농업기후 통합관측·재해 예측 시스템 △AI 기반 돌발 병해충 예측 시스템 △저메탄 기능성 발효사료 기술

2부에서는 ‘지능형 농업 인프라’, ‘첨단 그린바이오 기술’, ‘지속 가능 농업생산’ 3개 분과로 나눠 미래 농업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듣고, 미래 기술 전략을 논의한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과 산업계 시각에서 바라보는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농촌 혁신 방향을 조망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망대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내용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미래 농업기술 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제9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028~2037)’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김상경 차장은 “이번 전망대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미래 농업기술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며,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국가 농업 연구개발(R&D) 전략 수립과 현장 혁신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연구정책국	책임자	과 장	지 상 윤	(063-238-0710)
	연구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길 근 환	(063-238-0729)
					